

2023년 제5차 영유아분과 회의록

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일 시 | 2023. 6. 19.(월) 14:00 ~ 15:30 | 작성 | 신다희 |
| 장 소 | 수원시흥재복지타운 4층 교육장 | | |
| 참석자 | 총 15명(공공 2/3명, 민간 13/15명) | | |
| | 한태정(아동돌봄과 보육정책팀장) | ○ 신승주(사회복지법인 경동원장) | ○ |
| | 이은정(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) | ○ 이미영(시립고등동어린이집 원장) | ○ |
| | 이경옥(지동어린이집 원장) | ○ 이종금(시립광교2동어린이집 원장) | ○ |
| | 최하정(영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) | - 이지현(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) | ○ |
| | 구미아(시립서호어린이집 원장) | ○ 임현애(중앙어린이집 원장) | ○ |
| | 권경패(해피마인드 심리센터장) | - 장민자(학촌유치원장) | ○ |
| | 김병목(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) | ○ 장윤임(아동돌봄과 보육지원팀 주무관) | - |
| | 김신자(시립롯데캐슬엘클래스1어린이집 원장) | ○ 한태숙(나라유치원장) | ○ |
| | 박민지(아이린어린이집 원장) | ○ | |
| 선미혜(꼬꼬어린이집 원장) | ○ 신다희(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) | ○ | |
| 청강자 | 조영숙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| | |
| 회의 결과 | <p>1. 보육종사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간담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5명 참석 - 영유아관찰 및 생활지도 권리 침해 경험 사례와 제언 (천솔민 시립광교2동어린이집 보육교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모의 협조와 보조교사 확충 등 지원 인력이 필요한 내용이나 채용난으로 지원된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. · 교사의 건강권이 침해되면 어린이집에 책임 가중→아이에게 피해→전염 확대 로 이어짐. · 남자 교사의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가 지침에 없는 부분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질의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, 지침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음. - 모든 보육교사는 잠재적 아동 학대자가 아닙니다. (조진덕 아이린어린이집 보육교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는 종일제가 원칙이 맞지만 현실은 4시간 파트타임으로 운영되고 있음. · 대부분 부모와 교사 간 인식 차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. 아동학대 피해 주장이 제기되면 무혐의, 무죄 판정이 날 때까지 최소 6개월 간 경찰이 '가해자'라고 부르게 되며,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함. 또한 소가 잘못 제기되어도 아동학대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음. - 선생님의 인권도 함께 지켜주세요 (송재은 학촌유치원 교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육종사자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매우 폭력적인 점에서 피해가 발생함. 보호자도 절차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사회적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낮은 인식으로부터 오는 문제도 개선해야 함. | | |

- 종합토론 및 총평

1) 보육은 자치 행정을 발휘하기 정말 어려운 영역임.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처우개선 등과 같은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한 목소리를 내 함께 참여하며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음.

지자체 차원에서는 인식개선과 함께 별도 시범사업 형태로 시도해볼 만함.

2) CCTV 감시는 보호와 침해 사례가 공존하므로 점진적으로 타협하고 논의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됨. 특히 CCTV 열람 시 퇴소 요청 가능함을 명시하자는 주장은 차별금지조항에 어긋날 수 있으며, 개별 기관보다는 보육안 내지침으로 움직여야 함.

3) 행정 간소화는 평가/모니터링에 해당 안 되는 항목을 점검하면서 없어도 되는 부분을 정리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임. 시에서도 팀 차원에서 시행 근거와 보완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.

4)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교사의 70%가 갑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50%가 외모, 옷차림으로 인한 것으로 개인 자유의지를 지적하는 행태를 보임. 유아지도교사의 20%는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 중 4%만이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함. 힘든 과정이지만 보호자 교육이 함께 가야 하며, 보육종사자를 교육전문가로 바라보지 않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하겠음.

5) 타 지역의 시도 사례들 참고

-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권리존중 슬로건 공모전
- 서울/인천 권익 증진 토론회
- 구리/대전/광명/여주/서울 등 인권존중 캠페인 및 챌린지
- 부산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
- 강동구 어린이집 놀이활동 보조교사 지원 등

2. 차기회의 일정

- 일시 : 2023. 7. 14.(금) 10:30

- 장소 : 수원시흥재복지타운 4층 세미나실

- 안건 :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

회의
사진

